

## 順 命 篇

子曰、死生 有命 富貴 在天。

⇒ 공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삶과 죽음은 하늘의 명[天命]에 달려 있고,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도 하늘의 뜻에 있다.

⇒ 孔子が言うのに人の生と死は空の命[天命]によるもので、金持ちになって高貴になることも空の志である。

萬事 分已定 浮生 空自忙。

⇒ 모든 일은 이미 분수가 정해져 있는데 덧없는 세상 사람들은 부질없이 스스로 바쁘게 움직인다.

⇒ 全てのことには決まりが定められているのに世の人々は余計に忙しく動く。

景行録云 禍不可倖免 福不可再求。

⇒ 《경행록》에 이르기를, 화는 요행스럽게 면할 수 없고, 복은 두 번 구할 수 없다.

⇒ 《景行録》に伝わる災いは偶然に免れることが出来ないし、福は二度求めることが出来ない。

時来風送滕王閣 運退雷轟薦福碑。

⇒ 운이 좋아 좋은 때가 오면 바람이 일어나 등왕각으로 보내 주지만 운이 따르지 않으면 천복비에도 벼락이 떨어진다.

⇒ 運が良くて良い時が来ると望むことが起きて滕王閣で送ってくれるが、運が付かなければ薦福碑にも雷が落ちる。

列子曰、痴龍聾啞 家豪富 智慧聰明 却受貧。年月日時 該載定 算来由命不由人。

⇒ 열자가 말하기를, 어리석고 귀먹고 고질이 있고 병어리여도 집은 큰 부자이고, 지혜롭고 총명해도 오히려 가난하다. 운명은 해와 달과 날과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따지고 보면 빈부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늘의 뜻에 달려 있다.

⇒ 列子言うのに愚かでつんぼになって病み付きがあつて唾でも家は大きい金持ちで、賢くて聡くてもむしろ貧しい。運命は太陽と月と日と時間が決まっているから元はと言えば貧富は人のことではなく天の志によるものだ。